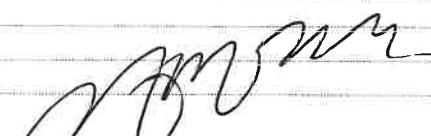


< 인사가 두 사람이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읽기된 이제 1단계</p>	<p>이 책은 읽게된 이유는 바로 제목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표지가 약간 이상해서(?) 읽어보고 싶었다</p>
<p>가운데</p>	<p>2단계 중간 3단계 생각, 느낌</p>	<p>앞단 처음에는 주인공이 안젤라를 질투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주인공의 성격은 신상이 나오면 무조건 산다. 그리고 주인공에게는 물론 3명이 있다. 그리고 신상 팔찌가 나온다. 하지만 주인공이 못해서 친구들한테서 사권을 받고 SNS에 올린다. 그러다 친구들도 팔찌를 사는데 적당히 산다. 이걸 놀리는 친구도 전광은 SNS에 올렸다. 여기서부터 권관계가 완전히 아작난다. 그래서 이전 동생 친구들과 논다. 이걸 또 SNS로 올린 주인공은 말한다. 이제 안젤라 반응이 시작된다. 역시나 안젤라는 모든 불만을 구박하고 한다. 하지만 안젤라는 반응이 제멋대로 오고 진상처럼 부린다. 여기서 안젤라의 현체가 공개된다. 여기서 전광은 SNS가 다가 아니라는걸 알게되고 친구들에게 사과해서 다시 관하게 된다.</p> <p>나도 다시 한번 SNS가 다가 아니라는걸 알았다. SNS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몰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중독하지 않고 관중일 것 같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한숨쉬지만 화해용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에게 SNS를 참 잘 알려준 책인 것 같다. 나는 SNS를 더 더욱 잘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화해용 친구들도 정말 할 마음이 넓은 것 같기도 하다.</p>
<p>끝</p>	<p>나의 생각 4단계 나의 다짐</p>	<p>앞단 이책 굉장히 재밌었다. 특히 이 책은 재미도 없으면서 더욱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보는 SNS를 재밌게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다.</p> 

중급

< 만화경 사진관 > 을 읽고 나서

<p>처 음</p>	<p>1단계 [2]</p>	<p>도서관에서 재미있게보는 책을 찾아서 읽다가 문득 다른 신간은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만화경 사진관을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각각 상처와 아픔을 지닌 사람, 우연히 이끌어 들어온 사람들 총 6 명의 사람들이 사진관을 발견하고 사진사인 류를 만납니다. 류는 사람들의 욕망, 소원을 알아차려서 그에 걸맞는 사진을 찍어줍니다. 맨 처음 사진관에 온 사람은 주리. 그녀는 약혼자와 결별을 약속한 참이었고 집에 오려고 한 약혼자에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주리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죠. 그녀는 마침껏 전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자 자신은 워딩드레스를 입고 뒤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약혼자가 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류가 그녀에게</p>	<p>게기 습니</p>
<p>가 운 데</p>	<p>2단계</p>	<p>말했습니다. "목에 얹고 물건을 주세요, 돈 대신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녀는 포기할수 없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뒤에도 유년 동생을 보는 소녀, 사랑이 아닌 인형, 나무표범 그리고 주리의 약혼자까지 이끌어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가 찍어주는 사진에는 믿을수 없는 시간과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사진관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 특별한 추억과 순간을 남기고 싶었고 이 사진관에 가면 나는 어떤 사진을 찍게 될까 하고 어떤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안에 누가 있을지도 궁금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 사진관이 있을지 같은지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 이 책 무지? 소설책인가? 재미 없을 것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책을 읽고나니 생각이 180°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상황에 이입하여 읽다보니 시간 가는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책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것이고 이 책과 비슷한 책은 또 읽고 싶습니다.</p>	<p>책 내용</p>
<p>생 각</p>	<p>3단계</p>	<p>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 특별한 추억과 순간을 남기고 싶었고 이 사진관에 가면 나는 어떤 사진을 찍게 될까 하고 어떤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안에 누가 있을지도 궁금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 사진관이 있을지 같은지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 이 책 무지? 소설책인가? 재미 없을 것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책을 읽고나니 생각이 180°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상황에 이입하여 읽다보니 시간 가는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책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것이고 이 책과 비슷한 책은 또 읽고 싶습니다.</p>	<p>생각</p>
<p>끝</p>	<p>4단계</p>	<p>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 특별한 추억과 순간을 남기고 싶었고 이 사진관에 가면 나는 어떤 사진을 찍게 될까 하고 어떤 사진이 찍히고 그 사진안에 누가 있을지도 궁금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 사진관이 있을지 같은지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 이 책 무지? 소설책인가? 재미 없을 것같은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책을 읽고나니 생각이 180°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 상황에 이입하여 읽다보니 시간 가는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책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것이고 이 책과 비슷한 책은 또 읽고 싶습니다.</p>	<p>다짐 전후 반향</p>

유하람

연우

중급

< 엄마 사육법

> 을 읽고 나서

처음	이유	엄마를 사육한다는 제법이 흥미롭고 표지도 실용하게 생겨서 이 책을 읽었다.
	1단계	
가운데	즐거이	현수라는 아이가 생명장난감 엄마를 가지고 있다고 아바바에게 드레싱한다. 하지만 아바바는 어떻게든 현수에게 너네 이라고 생각하곤 안 사주었다. 하지만 아바바는 동생이아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동생이아라고 할아버지가 다들 사서 뭘 기게워준다. 아바바는 조금씩 생각하다 결국 생명장난감 엄마를 사주기로 했다.
	2단계	그리고 현수는 엄마를 주인하마 표 1방울의 대접했다. 그 이후 아무런 애매조짐도 없었고 그리고 엄마가 만능이었다. 하지만 정태성이라는 친구가 현수의 엄마는 불량품이라고 불렀다. 현수는 그 친구를 만났고 그리고 태성이 파란사냥꾼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자 현수는 그날밤에 불량품이 되었기. 그리고 잠게도 못 잤다. 근데 잠잠 못 자고 현수 엄마는 불량품이라고 다들 사냥꾼에게 파란사냥꾼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바바는 내세워서 파란사냥꾼에게 팔았다. 그리고 현수는 파란사냥꾼에게 엄마를 팔아줬다고 했다. 그리고 현수는 아바바를 파란사냥꾼에게 팔아줬다고 했다. 그리고 현수는 아바바를 파란사냥꾼에게 팔아줬다고 했다.
	생각 느낌	보았지 하지만 현수는 느꼈지 그게 우리 엄마라는 것. 그리고 현수는 루미에 있는 엄마 사육법을 보았지. 아바바는 이라는 생명장난감이 아니었지. 그리고 엄마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생명장난감이라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보통은 아들이 엄마가 하라는데 여기서는 엄마가 아들이 하라는데 신기했다. 그리고 생명장난감에도 불량품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그 불량품을 잡는 파란사냥꾼이 있다는 게 더 신기했다. 그리고 현수가 초반에 엄마가 만능인데 나도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끝	다짐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다짐한 것은 엄마를 부러워하고 하지만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
	4단계	

< 여름을 한입 베어물었더니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 계기</p>	<p>이 책은 항상 우리집 거실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이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느라 책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어느날, 엄마가 평일에는 텔레비전을 볼수없게했다. 결국난 할게없어 더욱 심심한 나머지, 책꽂이를 둘러보았다. '개선생활관', '외번레인', '미지의 파랑' 등등등 책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그 책들을 모두다 읽었다. '여름을 한입 베어물었더니'만 빼고. 문가 표지가 재미없어 보였다. 하지만 언니가 강력히추천을 해서 결국 읽어보았다. 신나게도 정말 재밌었다. 생각보다 재미 있다.</p>
<p>가운데</p>	<p>2단계 줄거리</p>	<p>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리는 아이, 유찬이 스스로 태어난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 하지오를 만났다. 하지오는 유도도 전학도. 엄마를 위해 마지못해 했을뿐. 억지로 떠밀려온 동네에야 열사람. 백사람이 지켜주는 것보다 듣들하게 지켜주고 싶은 아이, 유찬을 만났다. 유찬은 5년전 불이나 부모를 잃었다. 그분을 지른 사람을 알면서도 말하지않은 사랑의 하지오의 아버지 남경사 아저씨였다. 유찬은 왜인지 하지오의 속마음을 들리지 않고 그아랑 익으면 듣고 싶지않은 속마음도 들리지않아평안하다. 유찬은 어느날 하지오덕에 불을 낸사람의 사정과 자신이 족지않은 진짜이유를 알게 되었다. 온마을 사람들이 양동이란양동이는 다져지고 와서 불을 끈것이었다. 강동받은 유찬은 운명하지않게 되었고, 뜨거운 여름을 하지오가 한입 베어물어 준것이었다. 이제 이들은 마작하는 순간 마다 그리워하게 되는 유희더운여름을 계속하고있다.</p>
<p>끝</p>	<p>3단계 생각과 느낌</p>	<p>나는 유찬처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들으면 재밌을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잘 못하면 괴로울것 같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냈었다면 남경사 아저씨께 처음부터 잘 대해 줬을것같다. 왜냐하면 남경사 아저씨는 '애가 나를 몰랐해 야하는 데,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지?' 하고 죄책감이 들게 될것 같기 때문이다. 또 나는 새별이형이 부른지론 방화범이 었던것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놈은 끝까지 나쁜놈이 만 한데, 새별 친배도 그냥 나쁜놈이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일것 못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부으며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사이다르 끝낼텐데' 라는 하지오의 말에 너무공감된다 또 책제목이 왜 '여름을 한 입베어 물었더니' 인지 궁금했는데, 유찬의 여름을 한입베 어물어 줬다는 하지오를 보고 감동적이 었다.</p>
<p>323</p>	<p>4단계 변화, 다짐</p>	<p>문가 읽어보고 싶지 않은 책이었지만, 읽어보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제1등, 표지가 재미없다고 읽지않지 않고, 꼭 한번 읽어 봐야겠다. 이 책을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네 의미있고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은 생각없이 그냥 읽다 '여?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대없이 읽는것을 추천한다.</p>

34
18
52

161

4

13- 30

- 27 x 5 = 132

-21
-105

중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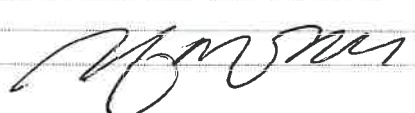
< 윙피크드 동사 기저귀 밴드의 수난 > 을 읽고 나서

처음	아유 1단계	이책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영어 버전으로 윙피크드 1권을 읽었는데 재미있어서 윙피크드 동사 기저귀 밴드의 수난 읽기 큰 인게 되었다. 또한 재목이 특이하고 재미있는 거 같아서 많이 되었다. 윙피크드 영화도 있어서 한번 봤는데 영화도 재미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윙피크드 책도 그림도 있고 글씨도 좋아서 읽어서 글을 읽을 때는 상상할 확률이 높고 작가가 또한 윙피크드 읽는 있어서 재미있는 책인지 같다.
가운데	줄거리 2단계 생각과 느낌 3단계	<p>처음에는 주인공 그레그가 유명해지고 큰 집에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싶어 했다 대신 문제가 있었다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 다 아는 것이었다 그래서 작은 오두막 집을 만들고 지하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그건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이 대신 유명해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유명해지면 해외여행도 가고 자신이 돈도 알리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 정보도 잘 보호 될 것이다. 다행히 그레그의 형 로드리크가 유명해질 계획이다 대신 밴드의 이름이 동사 기저귀 밴드 때 너무 생뚱맞게 같아는 않다. 처음에는 동사 기저귀 밴드가 녹음은 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데를 로드리크, 빈, 애기 화 드루 가 적어보았는데 동사 기저귀 밴드의 노래를 마오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해질 방법이 예탈리치와와 가 한 방식이다 베를로로비 밴드에서 한데는 세 곡에서는 예탈리치와와 가 들어왔는데 대학원 학생이 어렸다.</p> <p>이 책을 읽어서 이런 느낌을 가졌다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개인 정보를 아는 것이 이상한 거 같다 또한 유명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이지만 그걸 유명해질 거면 다른 사람들보다 독기가 있어야 한다 그걸로 유명해질 거면 경쟁을 많이 할 것이다. 또한 느낀 점은 그레그가 왜 돈을 안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외여행을 자신이 돈내는 것보다 좋은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족이여도 외로운 달로니까 속속한 것을 정할 수는 없었어 같다. 또 느낀 점은 유명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집무실에서 있을 거 같고 불편한 거 같다. 자유롭게 몸무게를 객대로 대하지 못할 거 같다.</p>
끝	책 읽고 나서 4단계	이 책을 읽고 나서 유명해질 거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같아 알게 되었다. 한 돈은 많이 벌 거면 그냥 노력이 아파 유명노력도 해야 되는 거 같아 되었다. 또한 유명한 사람의 가족이여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가족보다 유명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나쁜 이유로 유명해지면 유명하지 않는게 더 좋은 거 같다.



< 체리새우: 비밀입니다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 읽게 된 이유, 동기</p>	<p>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학교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고르다가 책 제목을 보고 비밀들이 무엇일까 궁금해졌고 전부터 친구들이 나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이다.</p>
<p>가운데</p>	<p>2단계 줄거리</p>	<p>이 책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골고루 많이 등장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인공은 '김다현'이라는 중학교 여학생이다. 다현이는 초등학교 시절 잠시 다름을 겪었고 그 후 중학교에 가서 들도 없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 다현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그 무리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모둠과 함께 다현이가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당연히 좀 찻찻해했지만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과제라서 별수없이 허락 해주었다. 그러나 과제 작업일이 길어지면서 다현이도 그 아이들과 친하게 되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다현이 무리의 친구들이 점점 다현이를 소외시키며 오랫동안 좋아하는 친구 1위였던 아이(한)를 무리에 넣고 영향력도 자기를 겨러만 내뿜는 것이다. 다현이는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지 못한 채 이야기가 끝났다.</p>
	<p>3단계 생각과 느낌</p>	<p>나는 이 책을 읽고 다현이가 안타깝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다현이의 행동을 분하고 싶었다. 나도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예전 한 여자 무리가 마음먹고 나를 따 시간 적에 있어서 다현이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다름을 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지금 시기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아주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나는 내가 예전에 다름을 당했을 때 나를 따 시켰던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지만 다현이는 자기를 따돌린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싸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더 멋진 용기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자세히 알고, 장대에게 더 좋은 행동을 보이고 싶다.</p>
<p>끝</p>	<p>4단계 마침, 나의 변화</p>	<p>아무리 엄청 친했다고 해도 영원한 친구는 없는 법이다. 나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도 인정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고 나한테 주로 집중하려고 한다. "욕이 내 배 속으로 들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미워하라 그래. 어쩔라고!"</p> 

< 비밀의 화원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책 읽기 시작, 동가</p>	<p>1단계</p>	<p>학원에서 용지를 풀기 위해 읽었다. 처음에는 두꺼워서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깊이 있고 포위하게 되었다.</p>
<p>가운데</p> <p>줄거리</p> <p>상징과 상징</p>	<p>2단계</p>	<p>북간첩에서 혼자서 양말을 신어 발견한 메리가 북으로 가게서 돌아오면서 알게 되는 법을 배우고 고문감에 갇힌다. 고문감에서 살고 있는데 새벽에 출근자가 들어 와서 작업. 출근자가 들어오는 법에 가보니 어떤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콜린이다. 그들은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 하지만 콜린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다. 메리는 비밀의 화원의 열매를 찾아 디콘과 함께 콜린을 몰래 화원을 구했다. 그리고 나중에 콜린은 자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밀의 화원에 들어갈 때 변한 사내에게서 콜린에 대한 점과 사람들이 비난을 들어 오기만 콜린은 교도소에서 읽어나 낸 할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했다.</p>
<p>끝</p> <p>다짐 변화</p>	<p>3단계</p>	<p>나는 메리가 고문감에 온 것이 마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콜린의 성격이 화를 잘내는 성격이고 성격이 좋지 않는데 메리가 온 후부터 점점 좋아지고 자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밥을 잘 먹었기 때문이다. 콜린은 자신의 병이 마음에 병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긍정적인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해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서 긍정적인으로 사는 마음이 생기었고 콜린이 밥을 먹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p>
	<p>4단계</p>	<p>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콜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콜린도 메리가 외전까지도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화내고 짜증내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메리가 온 후부터는 자신의 병, 간지럼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긍정적인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p>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이제, 동화, 1단계</p>	<p>사실 <전원당>이라는 책은 이미 207권(끝)까지 다 읽었지만 새로운 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읽게 되었다. 나도 지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책을 다시 생략해줬다.</p>
<p>가운데</p>	<p>주제비 2단계</p>	<p>즐거리는 주인공인 베니크가 전원당의 주인인데, 일어난 고사들이 다닌 마법(?)이 복여된 고사들을 만나 대 캠퍼마다 다른 주인공들이 전원당에 가서 각자 원하는 고사를 사는데 모든 사람이 아닌 "왕의 품련"을 가진 사람들과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사들에는 부각음이 있다. 주의사항을 잘 읽지 않으면 부각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이 고사들은 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p>
<p>가운데</p>	<p>리간느 3단계</p>	<p>난 이 책을 3개월 전에 읽었는데 때문에 대략 스토리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은 11권이 나오지 않아 다시 읽어 보았다. 나는 이 책을 3월 20일에 읽었다 난 이 책은 3월 20일에 읽었다. 대 캠퍼를 읽어서 난 그때 전원당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다. 난 그때 내가 (전원당) 갔으면 무슨 고사를 사서 어떤 주의를 받을 줄 알았데... 라고 생각했다. 난 지금은 실제로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읽어볼 줄 읽어들였다 생각한다. 실제로 전원당이 있었더라면 어떨까? 만약 원래대로 이리 있으면서 누가 잘못한 뒤 어떻게 할까? 한다.</p> 
<p>끝</p>	<p>4단계</p>	<p>내가 말했듯이 난 "전원당"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보면 전 주의해야 한다는 두 고충은 없었다. 생략해도 못한 단어나 내용 수가 많아서이다.</p>

중급

< 솜사탕 결사대

> 을 읽고 나서

<p>처 음</p>	<p>1단계 이유</p>	<p>표지가 굉장히 저 미있어 보이고 히어로? 같은 그런 이야기 인 줄 알고 봤는데 반전이 있어서 놀랐다. 사실 솜사탕 결사대 라고 해서 솜사탕 고등이 우리를 해치는데 결사대들이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인 줄 알았다.</p>
<p>가 운 데</p>	<p>2단계 특기</p>	<p>김두민 이라는 선생님은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얼마에게 떠맡겨 계속 계속 학교에 왔지만 교장선생님도, 전방지휘 1학년 아이들도 겁난다. 김두민 이라는 선생님은 학교 고문증이 있다 어느날 교장선생님의 임우가 떨어졌다. 오지유라는 학생도 학교 고문증이 있다. 권두민이라는 선생님은 오지유라는 학생이 집을 가서 얘기를 해 보았다 동지를 만난 기분에 웃었다. 오지유라는 학생이 김두민 얘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며 다음날 학교를 갔다 김두민이 힘든 일이 있으면 오지유가 도와준다. 덕분에 학교 고문증을 이겨 낼 수 있었다.</p>
	<p>3단계 생각 듣기</p>	<p>학교가 왜 두려운지 무서운지 이해가 안되었다. 나는 학교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재밌는데 말이다. 일주일 다 학교에 오라고하면 갈 자신도 있었다. 처음에는 학교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되었지만 이 책을 읽고 오기 싫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끔 쌤들도 학교에 오기 싫어 할때는 걸 알았다...)</p>
<p>끝</p>	<p>4단계 다짐</p>	<p>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애들과 안싸고 행복한 마지막 초등생활을 보낼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박근영</p>

중급

< 해리 포터 4 마법사의 돌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해리포터를 좀더하게 읽기도 했고, 이해하기 쉽고 문제를 넣어서 만족할 수 있을 줄 알고 해서 읽게 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해리포터가 어렸을때 볼드모트가 해리 복모님을 죽이고, 볼드모트가 해리를 죽이려 했으나 난 죽었는데, 그대신에 이복에 변해 용서가 생겼다. 복모님이 들어간후, 해리는 지팡이에서 리나와, 그로와드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로와드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 보았을 후, 가족들을 만나서 현이랑 같이 그로와드 학교로 갔다. 나중에 해리를 해리는 그로와드에서 복모를 돌아다니다 들켜 아주 망하게 되었고 돌아오는데 그로와드 마법사들이 있는 방이었다. 그리고 몇달이 지나서 볼드모트와 해리가 공수님이 잠깐 나간 사이에 볼드모트와 해리가 볼드모트를 다크 시어블 본 백고나쁜 공수님이 스니치 선속을 죽였는데 죽었었다. 스니치 두번째 경기에 스니치 공수가 심판들 해 경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볼드모트가 모든 것을 생각 하느라 잠깐 해리, 론, 헤르미온느를 제일해 가는 백고나쁜 마법사들이 있는 방에 갔었다. 론은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와 해리랑은 볼드모트가 있는 곳 알고 다른곳을 계속 있는 곳을 찾았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있는 곳에 갈수 있는 물약을 먹고 볼드모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스니치프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없었고 귀찮아 볼드모트가 있었다. 결국 해리가 모든 지팡이 되었고 덤블도어 건강법이 되지 않게 되어서 해리는 살았다.
	3단계	J.K 롤링이 이런 생각을 해낸것이 신기하고 이런 생각을 안했으면 지금의 해리포터가 없었으면 상상할 수도 없다. 헤르미온느가 공수님을 다 죽였다고 해서 다 기적이 나는걸이 신기했다.
끝	4단계	다 읽고 나서 확실히 영화보다 책이 정보가 더 많이 있었고 내가 상상해서 읽으니 더 재미있는걸 같다. 다른사람들도 다 읽어보아야겠다.



< 달려구드 꿈백화점 1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유, 흥기	제목과 표지가 처음 본자마자 너무 흥미로운 것이어서 예뻐하게 되었는데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어서
가운데	2단계 흥미	달려구드 꿈백화점에 입사하게 된 페니가 겪는 손님들의 갈등과 손님들의 고충에서 듣는 사원 구이로 현재적인 꿈 제작자들과 함께 모험도 하면서 페니가 꿈속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 등은 다룬다. 또한 할머니의 사람들과 그림자(?)가 꿈속 세계에 들어와 꿈을 사냥해 왔다고 주인공을 다가는 달려구드 꿈백화점의 각종 매니저들의 조종과 스도리가 담겨있다.
	3단계 생각, 느낌	나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무의식 속 어딘가에 있을 세계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곳에서 어떤 꿈을 살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여부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꿈백화점에서 온 대신 감정을 받는다라는 것. 나는 이 책의 작가의 상상력에 정말 놀랐다. 어디까지 가면 이렇게 창의적이고 상상 그림자의 재미있는 세계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다. 사실 나는 이 책에서 무주몽식하게 표현된 2층 매니저 비코와 이노의 대담이 정말 이야기와 그 세계관과 2권 어떻게 조화가 잘 재미있는 것이 2권이 더 기대된다. 나는 이 책이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다.
끝	4단계	나는 이 책을 내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물론 내 동생이 2권이 조금은 보기도 않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소설을 추천할 후회 없이 추천하게 되겠다. 다음 2권이 기대된다.

2025. 5. 24

< 건방이의 초강력 수련기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이유 1단계</p>	<p>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권도영이라는 친구가 '건방이의 건방인 수련기'를 추천 해줬는데 2번째 season이 나와서 읽었습니다. 이 책도 1,3,3,4,5 권이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1권이 도서관에 있어 이것을 읽게 되었습니다.</p>
<p>가운데</p>	<p>권력 2단계 (건방이와 또 권 무수인)</p>	<p>이 책의 줄거리는 처음에 친구라는 빨간 마스킹 소 귀신이 나왔는데 폭력을 당하는 아야에게 고통을 먹여 힘을 세게 해주고 여난다. 건방이가 학교에 제각을 해 자리에 앉았는데, 오저만이 선생님께 인터 말했는데, 다음 되는 시간 병원을 쓰고 있는데 유독보스타 손중이 찾아와 동란이 되었다. 이날 건방이와 오저가 돌아 다녔 있는데 남자가 어딘아이론 괴롭히는 격바 싸웠는데, 그 남자가 아픈 걸 못 느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건방이는 싸우고 기절시킨다음에 밤중에 병간중이 나왔는데 그래서 적구의 수련이라는 것을 알아 적기를 죽여가 싸운다음에 적기를 골라줍니다.</p>
<p>가운데</p>	<p>생각과 느낌 3단계</p>	<p>제 생각과 느낌은 건방이가 권구르 골라치는 게 재미 있었고 다음 2,3,4 권이 궁금해 해서 다 읽었는데 1권이 가장 재미가 있어서 1권을 도서관에 썼습니다. 건방이와 친구들이 위험을 해치거나 귀신을 골라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p>
<p>끝</p>	<p>4단계 다짐</p>	<p>저는 이 책을 읽고 책이 재미있어서 다음에 책을 많이 읽을 것 입니다.</p>

(Handwritten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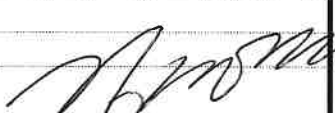
중급

< 왕따 선생님 구출 작전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책을 읽 은 이유 등기	왕따 선생님이 도서관에 가져온 책이다. 나는 도서관에서 왕따 책을 찾으며 돌아다니던 그때,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왕따 선생님을 구출한다'고? 라는 궁금증이 들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왕따지?', '선생님들도 왕따를 시키나?' 라는 등 여러 호기심이 생기는 책인 것 같아서, 누가 가져가기전에 얼른 읽어 왔다.
가 운 데	2단계 줄거리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 원두비 반 담임 선생님이 림신을 하셔서, 예비 담임 선생님이 원두비 반에 오셨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주인공 원두가 알아차렸다. 그래서 원두 선생님을 응원 하고 도와주기 위해 매일 응원쪽지를 썼다. 알고보니 원두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선생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두의 원래 담임 선생님이 돌아오는 날, 예비 담임 선생님은 원두에게 쪽지를 써 주었다. 그 쪽지 안에는 원두의 반에 있는 자폐증을 가진 영국이를 잘 챙겨 주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 하지만 원두 영국이가 싫었다, 왜냐하면 영국 이를 도와주다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다. 원두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왕따를 잊으려 해도, 영국이랑 또 같은 반이 되어서 작전에 당했던 왕따가 자꾸 생각이 났었다. 여름방학날 원두는 영국이 한테 인사를 하는 것을 끝으로 이 책은 끝이 난다.
	3단계 생각과 느낌	난 처음에 책의 제목만 보고, 반 아이들 모두가 왕따인 선생님을 구출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왕따인 아이가 왕따 선생님을 구출 하고, 결국에는 주인공 왕따의 율인이었던 친구를 더 좋아해주는 이야기여서 너무 놀랐다. 그리고 제목만 보서는 '액션 이야기' 일 것 같은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여서 좋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 실제 스토리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 이야기라면 원두는 조금 불쌍하고, 영국이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것 같다. 그리고 예비 담임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서 같이 있고 싶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실재가 라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작가님의 상상력·창의력이 너무 대단하고, 나도 이 작가님의 글쓰기 능력을 배우고 싶다. ㄱㄱ
끝	4단계 다짐 읽은 것과 후 변화	나는 제목을 보고 딱 제목에서만 나타난 단어로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더 깊이 넓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영국이 같은 아이를 많이 도와줘야 하겠다! 많은것을 배운 책 이었다.

< 2120년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등기는. 엄마가 집에서 정리하던 중 엄마가 나에게 오늘 이 책을 읽어보자라고 하셔서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미없어보여서 읽기 싫었지만 읽다보니 흥미진진하고 결과가 궁금해서 읽게 되었다.</p>
가 운 데	2단계	<p>2120년 시간 여행자들은 2120년에 있는 바닷가, 야생 동물, 숲을 보러 타임머신을 타고 2020년 과거로 오게 된다. 그런데 시간여행자들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파울루스 박사다. 그 박사는 과학자다. 그 박사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미래로 가려 한다. 그런데, 요하난이 숨니아버로 라는 4면 유도제를 배스에 두고 내려 요하난만 시간의 문은 못 타고 갔다. 그래서 파울루스 박사에게 죽게 된다. 하지만 요하난의 친구들 도움으로 숨니아 베로를 와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p>
	3단계	<p>요하난이 파울루스 박사한테 죽게 될때 그 순간에 요하난이 긴장감이 많이 있었는데 책을 읽는 나도 나한테까지 긴장감이 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파울루스 박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미래로 가려는 걸 보니 지구 온난화가 진짜 중요하고 심각한 것 같다고 생각된다. 또, 뒷이야기에서 요하난이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헤어질 때 정말 슬펐다.</p>
끝	4단계	<p>나도 이제부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분리배출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고, 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끄고 나무를 심고, 동물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식천하기 위해 노력은 할 것이다.</p> 

< 내일은 슈퍼리치 >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p>	<p>주인공 재원이자는 엄마가 맨날 공부해야 돈을 잘 벌거야! 라고 해서 엄마와 재원은 내기를 했다. 한달 동안 재원이가 10만원을 번다면 인정하지 만 만약 지키지 못 하면 엄마가 다니라는 학원 다니면서 큰소리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함. 첫번째로 생략한 곳은 신문 보금수였다. 아버지가 심심하면 꺼내는 '나테트' 이야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 보금수로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받아주지 않았다. 아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 라서 알아보면 안 곳이 별로 많지 않음. 그러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눈에 띄어놓 거기적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또 어린아들은 안 받는다고 거절 당함. 그러다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웃음이 싹 싹 나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감. 하지만 편의점 알바 누나는 복권은 어린이에게 팔지 않는다고 냉정하 게 말함. 재원은 자종과 함께 놀음이 나돌려 함. 이를 틈에도 예전히 돈 벌 궁리를 함.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음. 학교 끝나고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허리가 극복정한 할머니 니를 만남 그래서 할머니의 장을 들어줌 할머니가 고맙다며 권원 한 장을 줌 어쨌든 복권</p>
<p>가운데</p>	<p>2단계</p>	<p>이 책을 읽고 느낀점: 돈버는건 쉽지않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땅파보라 돈이 나오나 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돈을 아껴써야 겠다, 재원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걸 알았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흥이 너무 흥하면 안좋은 것 같다. 일하는 공부든 노는 것이든 끈고루 해야되는걸 알았어.</p>
<p>끝</p>	<p>4단계</p>	<p>이 책을 읽고 느낀점: 돈버는건 쉽지않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땅파보라 돈이 나오나 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돈을 아껴써야 겠다, 재원이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걸 알았라,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흥이 너무 흥하면 안좋은 것 같다. 일하는 공부든 노는 것이든 끈고루 해야되는걸 알았어.</p>

Handwritten signature

< 죽이고 싶은 아이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 책 읽은이유</p>	<p>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친구들이 추천해서 읽었 습니다</p>
<p>가운데</p>	<p>2단계 줄거리</p>	<p>세. 고등 학생 17세 박서은이 학교 앞에서 쓰러기 태우는 데서 피가 묻은 벽들과 함께 발견됐다. 처음에는 자살인 줄 알았지만 지주연 학생이 죽인 거로 SNS에 퍼진다 그래서 지주연이 죽었다 몰아세게 된다 왜 지주연이 죽인 걸로 의심이 됐냐면 지주연이 인싸였 는데 박서은은 아싸였고 지주연이 아싸인 박서은이랑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서은도 인기가 많아져 질투가 나 부모님이 부자-여서 용돈으로 사촌질 같으라 한다 그리고 주연 할로 험박까지 한다 그리고 박 서은은 아싸 돈 없고 그런 애였다 그런데 험박을 한 것 이다. 사건은 주연이 험박을 한 건 기억하는데 죽인지는 아니</p>
<p>끝</p>	<p>3단계 느낌</p>	<p>이 책을 읽고 변호사가 돈을 얻을라고 거짓 자백 을 하라 하는 부분에서 거짓을 그때 무조건 거짓 자백을 해야 했었다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사람이 주연이 범인이 아닐수 있지만 의심부터 아님 꼭 그 사람으로 지목을 하느라 알았다 꺼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 이라 주장 하지만 아나라는 사람도 많 다 여기서 사람들이 만화보느라 이야기로 말려주는 데 거짓서는 주연은 부자고 돈 많고 무섭이 좀 많다 그렇다고 주연이 죽이지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 나는 주연은 죽이지는 않 하지만 험박을 해서 자살한 느낌이 났다 이 책을 읽고 사람을 죽이느라 질투심 욕심만 많으면 죽이지는 못지 않고 거짓말이 어 떤 결과물가 서 오는지를 알았다</p>

고 해서 시작된다.

안되

나. ~지 않다

(Handwritten signature)

자기 표현

중급

< 십년가게/1 ①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이 책을 읽기</p>	<p>1단계</p>	<p>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책 제목이 신기했고 형이 재있다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p>
<p>가운데</p> <p>즐거워</p>	<p>2단계</p> <p>즐거워</p>	<p>의미 있는 물건, 지키고 싶은 물건, 멀리두고 싶은 물건은 가진 사람들이 십년가게라고 적힌 편지를 받고. 십년가게에 와서 물건을 맡기고 숙명1대학 복귀하면 10년 후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해 준다는 글귀.</p> <p>숙명을 받고 물건을 보관해 준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아픈 환자를 위하는 사람을 만들어 줄 책상이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교만한 백담에서 복심을 부린 사람이 백담을 복원이 재밌었다. 왜냐하면 복심을 복에서 복을 데는 복원이 시원한 거 같아서 재밌었다. 그리고 나도 십년가게에 맡기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십년가게가 하는 일에서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끝</p> <p>생각과 느낌</p>	<p>4단계</p>	<p>나는 이 책의 교만한 백담을 읽고 문심 부리 리라고 정직하게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p>

(Handwritten signature)

이름이

중급

< 그림책 매개소 >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우리가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려고 광고서로 불러 왔는데 그 재미와 함께 읽었다</p>
<p>가운데</p>	<p>우리가 그림책 라는 나라가 100년에 피암을 사고 파다 노를 여러 이라 총 13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롭다. 우리가 사다오라는 사람이 커다란 포에서 1년에 1~2번 열리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받아 그림책 사고 파고 그 그림책에 대한 해설도 해 준다. 사람들은 매번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고 나서 속이 편안 해진다</p>
<p>생각의 확장</p>	<p>나는 이 책을 읽고 그림책은 무서운 것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림이 재미 있어 그림이 재미있게 (느낀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00년에 1번씩 사고 파는 가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리고 서재도 이런 가게가 있는 거야. (놀라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림책도 만들고 종이 시원하게 신기했다. 그리고 서재도 100년에 1번씩만 볼 수 있는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가 사다오라는 나라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림책의 재미있게 신기했다.</p>
<p>끝</p>	<p>나는 이 책을 읽고 나는 그림책이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림책은 사고 파는 가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가 사다오라는 나라의 사랑의 마음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림책의 재미있게 신기했다.</p>

[Handwritten signature]

<

간간밤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 읽기 이해</p>	<p>제목, 표지가 재미있어 보였고 재미있고 슬프다고 들었다. 그리고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이여서 더욱 보고싶었다.</p>
<p>가운데</p>	<p>2단계 중요 3단계 생각과 느낌</p>	<p>'노든'이라는 코발소가 있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와서 노든의 가족들을 죽였다. 그 중 노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이상한 주사를 맞고 기절했다. 일어나서 보니 동물원에 와있었다. 그 동물원엔 또 다른 코발스인 양가복이 있었다. 둘은 동물원 탈출을 계획해 탈출하던 도중 양가복이 죽었다. 가족에다가 양가복까지 죽으니 노든은 슬펐다. 노든은 두隻 펭귄을 발견했다. 말이 있었는데 그 말로 정박이 되었다. 그 펭귄들은 치쿠와 웜보였다. 그 도중 불이나 웜보는 죽고 치쿠가 남았다. 치쿠와 노든은 새를 의지하게까지 말이 있던 포식권이 태어났다. 책이 죽었다. 노든과 그 펭귄은 서로 사랑하며 생을 대나갔다. 너무 동물들이 죽어 슬펐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슬펐다. 그리고 정박지가 있거나 피투가 까맣다고 차별하면 안돼거 같다. 그리고 각 이 책을 읽고 가족이 보고 싶어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불쌍하다. 다시</p>
<p>끝</p>	<p>4단계 다짐</p>	<p>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차별을 하지 않아야겠다. 또 동물들을 소중히 다루어야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장자유</p>

< 소음 문제는 아파트 > 을 읽고 나서

<p>이웃</p>	<p>처음</p>	<p>1단계</p> <p>앞에 표지가 가족들이 정한 표지여서 이번 새집을 거 같아 이것을 골랐다. 그리고 표지가 굉장히 화려해서 눈에 잘 띄었다.</p>
<p>줄거리</p>	<p>가운데</p>	<p>2단계</p> <p>가정환경원이 4명으로 엄마, 아빠, 아들 2명이다. 근데 아들 2명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엄마, 아빠는 못참고 무용산을 가서 소음이 가장 적은 아파트를 찾았다 근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소음이 가장 적은 아파트를 찾아주었다. 그건 바로 소음 민원이 있는 아파트였다. 아랫집 소리를 내면 안되고 점잖게 소음을 낼수있었다. 엄마는 바로 연락했다. 이따고 점잖아씨가 점잖게 있는 정모기가 4번이상 울리면 이따기한테 알들이 들어난다고 했다. 계속 소음 아파트에 살다가 아들 한명이 학교에서 아파트 얘기를 해주었다. 친구들은 표도 같다고 했고 표도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이사를 갔다.</p> <p>3단계</p> <p>사람은 적당히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고, 이사가길 잘한거 같다. 계속 그 아파트에서 머뭇머뭇 그 가족들은 다른 집을 가도 아랫집처럼 엄청나게 예민했을 것이다. 지금도 거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다.</p>
<p>다 읽고 생각과 느낌</p>	<p>끝</p>	<p>4단계</p> <p>나도 앞으로는 웃집에서 공간 대도 살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 이후에 층간소음을 내면 이웃에게 피해를 간다는 것을 알았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최대한 안 내도록 노력해보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은수</p>

조은찬

중급

< 찰리 와 초콜릿 공장 > 을 읽고 나서

처음	이 책을 물어본 1단계	엄마가 영화관을 가서 윙카를 보라고 했었는데 나는 책을 하는 걸 안겠다. 근데 그 윙카 영화가 찰리 와 초콜릿 공장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에서 알아 보게 되었다.
가운데	2단계	찰리네 가족은 정말 지게 가난했다. 찰리는 반드시 잘 먹지 못하고 학교에 다녔다. 찰리가 원하던 건 단 하나다 그게 바로 윙카의 초콜릿이다. 그 초콜릿 빛은 황금색이다 찰리는 그런 1년 뒤 한번 맛을 보게 된다. 찰리는 황금빛 초대장을 받았었다. 윙카씨의 공장을 들어갔다. 윙카의 공장을 엄청 컸다. 윙카네는 윙카와 파니를 이리 한다. 윙카와 파니- 사랑도 엄청 작았다. 윙카씨네 공장을 모든 것은 초콜릿과 사탕을 만들어 낸다.
	3단계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나노기를 찰리, 엄마, 아빠 조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족의 내로 가난 하고 찰리를 반드시 잘 먹지 못해서 될 생각한다. 그런데 찰리 황금빛 초대장을 받은 해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찰리네 가족이 편지를 해서 나에게서 많이 응원했다. 나는 그런 사탕을 는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 초콜릿을 엄청 맛있게 먹다
끝	4단계	이 책을 읽고 다짐을 찰리네 가족처럼 힘들 가족들을 내가 꼭 더 많이 되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연후

중급

< 달려가면 꿈 변화 정 > 을 읽고 나서

<p>처음</p>	<p>1단계 읽기 듣기</p>	<p>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우리는 두 시간을 둘러보다가, 한 코너에 도착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에게 사진 같이 두꺼운 책을 추천해줬다. 난 무슨 표정도 없다가 이 책의 제목을 읽고는 부끄러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책을 읽었다고 하는 비굴에 읽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이 예상과 달리 너무나 재미있어서 난 틈틈이 늘 책에서 읽었고, 마침내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p>
<p>가운데</p>	<p>2단계 읽기</p>	<p>내가 품바진 이 책을, 말 그대로 '달려가면'이 문장하는 '꿈 변화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은 책이었다. 페니라는 사람이 이 대단한 변화정에 취직해서 다른 직원들처럼 꿈을 팔면서... 문장 뒤에 고개를 다 꿰고, 점점 봉숭한 직원으로 성장해나간다. 그런데 이 달려가면의 꿈 변화정이란 우리가 잠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꿈 변화정이다. 이곳의 직원들은 우리에게 꿈을 팔고, 우리에게서 잠에서 깨면 잊혀지는 신비한 곳이다. 게다가 달려가면은 시간의 신의 제자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대단한 곳에 취직할 페니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 보았을까?</p>
<p>생각 느낌</p>	<p>3단계</p>	<p>나는 이 책을 읽고는 너무나 이곳에 가고 싶었다. 의지대로, 나는 이미 이곳에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잠에서 깨도 꿈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다. 꿈 변화정에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고를 때, 정말 군사한 경험에 될 것 같다. 내가 이곳에 가서 꿈을 고르게 되면, 내 꿈 '변태'가 되는 꿈 '변태'로 살아가는 꿈을 무명함 꿈 제창자의 꿈으로, 자신을 강요하여 변태가 되어 자유롭게 제창하는 것이다. 나는 '변태' 변태나 고대 아니며 다른 물고기였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꿈은 내 상상과 정말 많은 꿈이다. 얼마나 평범하고 자유로워할까 이 꿈을 살 수 있다면 어서 사보고 싶다.</p>
<p>끝</p>	<p>4단계 다짐</p>	<p>오늘 밤 책상에 누우면, 이 이야기가 계속 생각날 것 같다. 나는 곧 오늘 밤에, 바로 달려가면의 꿈 변화정으로 달려가서 무조건 '변태'가 되는 꿈을 사서 꼭 꿰고 싶다. 이것을 나는 시간의 신에게 기대된 것을 처음으로. 어서 내가 책상에 누운 시간이 오기를.</p>

중급

< 고양이 식당, 추억을 요리합니다.

> 을 읽고 나서

<p>처 음</p>	<p>1단계</p>	<p>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생각없이 하루를 보내는 책 추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이 있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서평에서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p>
<p>가 운 데</p>	<p>2단계</p>	<p>신인배우로 주목받고 있던 오빠가 자신을 귀찮아하고 혼자로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가족 한 명에 잃고 깊은 슬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보내다 오빠의 심복에 찾아갔다. 거기에서 오빠가 소중히 지켜왔던 극한의 단행본 구아개를 만나게 된다. 구아개는 고도코에게 큰돈을 지불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준다. 고도코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 직업을 방문하게 된다. 고도코는 그곳에서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오빠가 나타나게 된다. 고도코는 오빠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본다. 그때 오빠는 부대에서 자신의 꿈이었던 배를 타고 싶다고 말한다. 고도코는 오빠의 말을 듣고 다시 극단에 들어가 배를 타고 싶어지게 한다.</p>
	<p>3단계</p>	<p>이 책을 읽고 느낌은 추억을 먹으면 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추억을 먹어보고 싶다.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꿈을 만들 수 있을 식량이 있다면 고도코의 오빠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꿈을 만나 아끼고 싶다는 말을 보았다. 꿈이 5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p>
<p>끝</p>	<p>4단계</p>	<p></p>

[Handwritten signature]

처음

Q1 1-1

지리

가
운
데

~지 않다

ex) 7/21/05
7/21/05

다
끝 4단계

[illegible]

일기가 많아서도 친구들 재밌게 하면
 안된다. 거만하다 인기가 없어
 친구들 사귀지 못하면 비리 되고
 인기가 없고 왕대하고 우왕하고 귀왕 왕대
 건립을 수조 바르 자기도 우왕 왕대 자기
 가 왕대 해질다

[illegible]

26/02/24

10